

삭개오의 회개와 로마의 조세정책

고신대학교 박창식

- 목 차 -

I. 서 론
II. 로마의 조세제도적 환경과 삭개오의 경영과오
1. 로마의 조세제도적 환경
2. 로마의 조세정책적 한계
3. 삭개오의 경영과오
III. 발상전환을 통한 삭개오식 경영 패러다임
1. 만남을 중시한 경영의 귀재
2. 직무몰입형 경영자
3. 삭개오식 경영의 탁월성
IV. 결 론

I. 서 론

삭개오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작카이오스 (Zaxxhaeus) 인데,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한 말로써 ‘순진하거나 의로운 사람’을 뜻한다. 작은 키로 유명한 그는 예리고의 부유한 유대인 세리로, 매우 특이한 환경하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눅 19: 1~10).

누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삭개오의 흥미있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을 위해 씌어진 세리 마태¹⁾의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지만,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위해 씌어진 누가복음의 의도를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즉 누가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복음을 기록한 것임에 틀림없다. 누가는 삭개오가 세리장(아르케텔 로네스, architelones)이면서 또한 부자였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삭개오는 일종의 지방 세금 감독관으로서 로마 정부나 또는 그 속국(속주, provincia)²⁾의 지방 정부로부터 예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들였던 자였을 것이 분명하며, 그 수하에 많은 세리들을 고용하여 그들 모두가 막대한 커미션을 받으면서 실제로 세금을 징수했을 것이고, 그 결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예리고는 종려나무의 숲과 발삼(balsam)으로 유명했고, 옴바(Joppa)와 예루살렘 및 요단강 동부지역 사이의 주요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곳에서 재산을 모으기란 쉬웠을 것이다. 삭개오는 예리고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 중 한사람이었으며, 예수님이 삭개오와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저가 죄인³⁾의 집에 유(留)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예수를 비난하여 수군거렸던 것도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납득이 가는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당시 로마의 조세제도적 환경에서 유대사회가 처한 곤경을 경영관리적 차원에

1) 마태(Matthew)는 예수의 열두제자중 한사람으로 그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세리(稅吏)였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다메섹(Damascus)과 아크레(Acre)를 잇는 도로를 통하여 수송되던 상품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던 것이 그의 임무였으며, 또한 이 지역의 어업이나 공산품에 대한 세금 부과가 그의 임무였던 것 같다(성서교재간행사, 성서백과대사전, 1980.4 p.701)

2)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할당 혹은 과업이라는 의미임. Andrew Lintott, Imperium Romanum, p.22

3)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하말티아(hamartia)는 과역을 맞히지 못하거나 빚나가거나 목표에 도달되지 못한 것이 죄로 표현되고 있음

서 기술하고,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나라의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어떻게 당시 사회 환경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는가를 규명한다. 그리고 그가 처했던 환경과 예수라는 특정인물을 만남으로 이러한 경영과오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의 믿음과 탁월한 경영마인드와 수완으로 해결하는 것을 로마의 조세제도적 환경이라는 특수상황과 함께 규명하고, 이를 기독교경영 관리 차원에서 조사(照射)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삭개오의 경영과오와 로마의 조세제도적 환경

1. 로마의 조세제도적 환경

(1) 조세제도의 정비와 운영

로마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에 걸친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러 민족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였다. 제국의 모든 자유인을 시민으로 포용한 시민권 확대정책⁴⁾과 정복지의 정체와 법률, 종교와 관습을 존중한 정책⁵⁾ (L.P Wilkinson, 1974) (A. Linfoft, 1993) 로마가 훌륭한 통치술에 걸맞은 얼마나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으며 얼마나 공평하고 운영하려고 노력했는가를 볼 수 있다.

BC2C초부터 로마는 명실상부한 제국이 되었다. 로마의 피정복민들은 단일하고 균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정복과정, 정복지의 문화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서 그들이 담당했던 지위와 부담이 달랐다. 로마의 통치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해서 속주민이라 부르지만, 그 안에는 뚜렷한 계서가 있었다. 즉 속주(provincia)는 동맹 왕국, 자유시, 특별한 지위가 없는 공동체(stipendiariae)로 구성되었다.

BC 2C 초부터 로마는 명실상부한 제국이 되었다. 그 제국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제국은 지속적인 약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기반 위에서 피정복민들을 통치했다. 따라서 로마는 제국의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는데, 예를 들면 관리들의 독직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의 발달은 로마의 피정복민에 대한 태도가 점차 바뀌어 가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조세제도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영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필수요소였고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었다. ⁶⁾

로마제국의 피정복민들은 균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정복과정, 정복지의 문화 및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서 그들을 담당했던 지위와 부담이 달랐다. 속주(provincia)는 동맹 왕국, 자유시, 공동체(stipendiariae)로 구성되었다. 로마는 BC 241년 사르디니아를, BC227년에는 시실리를 속주(provincia)로 만들었다. 이전에 로마는 여러 국가들을 정복했지만 동맹을 맺거나 협정을 맺어 보상을 받았을 뿐이었다. 이 시기에 로마가 두 속주를 직접 통치하게 된 것은 카르타고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인 때문이었다.⁷⁾

4) 로마의 피정복민족들이 원수정 기간에 로마화되었으며 후기 로마제국기에 보편성 개념이 널리 수용되어졌다. 로마가 정복한 모든 민족을 하나의 통합된 세계로 끌어 들였다. (Marta sordi, The Christians and the Roman Empire, 1988, p.156)

5) 로마는 정복지의 정치, 행정, 관습, 법률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보존시키려고 했다. 로마인들은 심지어 유대인의 안식일까지도 존중하였다. 로마의 이런 유연한 피정복민정책을 ‘보수주의’(conserve)라고 부른다.

6) R. MacMullen, "Tax-Pressure in the Roman Empire", Latomus 46, 1987, p. 738

7) Henry C. Boren, The Gracchi,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68, p.12

헬레니즘 시대에 존재하던 자유도시(free city)의 개념이 로마에도 있었으며, 이 자유시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법을 유지했고, 로마로부터 조세와 군대 복무를 면제받았다. 예를 들면 소아시아의 스미르나(smyrna)라는 도시는 친 로마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BC 189년 자치와 면세를 인정받았다.⁸⁾ 이렇게 면세받은 지역을 자유로운 면세도시(civitates immunes)라고 불렀다. 면세는 자유시와의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로마인의 법이나 로마 지배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자를 동맹도시(civitas foederata)라고 불렀고, 후자를 ‘동맹없이 면세를 받은 자유도시’(civitates sine foedere liberae et immunes)라고 불렀다. 총독의 통치를 받고 조세와 부역을 내는 공동체들을 조세납부자들(stipendiariae)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조세(stipendium)⁹⁾를 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속주민들이 위와 같이 크게 3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제정이 수립되면서 이들 사이의 격차가 축소되고 자치체들이 누렸던 여러 가지 특권이 폐지되었다. 조세제도 측면에서 이것은 면세를 누렸던 동맹왕국들과 자유시들의 그 면세권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공화정기에 왕국들은 군사적인 협조를 제공했지만 조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BC 129년 아퀼리우스(Aquilius)가 속주 아시아를 정비하면서 정복지 중 일부지역을 왕국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이 조치가 로마의 세수를 감소시킨다고 비난하였다. 이 경우에 왕국 영역으로 편제된 지역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것 같다.¹⁰⁾ 그렇지만 제정기에 들어서면 면세권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다. 가령 유대에서는 예수님의 부모가 조세 징수를 위한 센서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유대가 조세 납부지역임을 알 수 있다.¹¹⁾

(2) 조세징수 청부제도와 삭개오의 등장

조세징수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는 조세징수 청부제도를 폐지하고 로마 정부가 지방의 자치체를 통해서 직접 징수하는 제도를 발달시켰다. BC 47년 카이사르는 아시아 속주에서 조세 청부업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도시 공동체가 그 납부를 책임지도록 했다.¹²⁾ 이후 조세징수청부업자들의 기능은 계속 축소되었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 쇠퇴는 점진적이어서 세베루스조까지도 조세징수 청부업자들의 조합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¹³⁾ 이들은 몇몇 속주들의 직접세, 간접세, 로마 시민들의 상속세, 황제령의 수입 등을 도급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속주민들이 납부했던 세금은 일반적으로 정규세와 비정규세로 대별할 수 있다. 정규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지며, 특히 간접세는 관세로 대표되는데 직접세에 비하면 비중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주로 직접세를 다루기로 한다.

속주민들이 납부하는 세를 속주세(tributum)¹⁴⁾라고 하는데, 이는 토지세(tributum soli)와

8) F.D. Martino, Nuovi studi di economia e diritto romano, 1988, p.128

9) 원래 군대의 급료를 의미했으나,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가 스페인에 주둔할 때, 군대의 급료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인들로부터 화폐를 징수하였다. 이 때 stipendium은 속주에 대한 조세가 되었다. (Livius, 28, 25, 9f)

10) L. Perelli, I Gracchi, 1993, pp.197-198

11) 누가복음 2: 1~3

12) Appianus, Bell Civ, 5.4 ; Dio Cassius, Historia Romana, 42.6

13) P.A. Brunt, "Publicans in the Principate," Roman Imperial Themes, 1990, p.356

14) W. Goffart, Caput and Colorat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 pp.11-13. 이 말은 정규적인 조세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속주민들이 중앙 정부에 바치는 기부를 일컫는다. 따라서 속주민들이 바치는 모든 것을 tributum이다. 가령 갈리아를 평정한 게르마니쿠스의 군대

인두세(tributum capitis)로 대별된다.¹⁵⁾ 토지세의 경우 그 수확성과 조세부담능력이 고려되었고, 주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토지가 있는 지역에 부과되었다.

토지세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시실리의 경우이다. 키케로에 따르면 시실리 속주에는 곡물, 올리브, 기타 과일과 같은 생성물에 십일세(decuma)가 부과되었다.¹⁶⁾ 그리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BC 123-2년에 아시아 속주에 대해서도 십일세를 부과하였다.¹⁷⁾ 십일세가 표준적인 조세율이었지만,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료들에 의하면 토지가 공유지나 사유지나, 또한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세율은 다양했고, 포도와 올리브의 경우 세율은 좀더 높았다.¹⁸⁾

2. 로마의 조세정책적 한계

기원전 2세기초부터 로마는 명실상부한 제국이 되었다. 그 제국을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제국은 계속적인 약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인 기반 위에서 피정복민들을 통치해야 했다, 따라서 로마는 제국의 통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해 간다. 가령 로마 관리들의 독적을 엄격히 통제하는 법의 발달은 로마의 피정복민에 대한 태도가 점차 바뀌어 가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피정복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제도 정비 중에서도, 조세제도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국가 운영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면서, 정복민 각각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인들과 속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이다.¹⁹⁾ 그러므로 로마의 조세제도 변천을 살펴보면, 로마인들이 속주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로마제국에서 자유시들은 주로 그리스, 소아시아, 시리아에 있었다. 즉 오랫동안 자유시로 있던 지역을 로마가 점령하면서 그들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해 준 형태였다. 각 도시들의 지위가 모두 같이 없어서 어떤 되들은 자치권을 받았지만 조세를 면제받지 못하였다. 자유시들은 세세한 면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권과 의무를 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유시와 그들의 성원이 전적으로 로마 관리들의 권한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그들이 워 사람들과 분쟁하게 될 때, 로마의 관리들이 그 분쟁을 처리했다. 총독의 통치를 받고 조세와 부역을 내는 공동체들은 조세납부자들(stipendiariae)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조세(stipendium)²⁰⁾를 내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조세징수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는 조세징수청부 제도를 폐지하고, 제국 정부가 지방의 자치체를 통해서 직접 징수하는 기제를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기원전 47년 카이사르는 아시아 속주에서 조세청부업자들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도시 공동체가 그 납부를 책임지도록 했다.²¹⁾ 이후 조세징수청부업자들의 기능은 계속 축소되었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쇠퇴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영향력 쇠퇴는 점진적이어서 세베루스조까지도 조세징수청부업자들의

에 말을 제공하는 것이 tributum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속주민들이 납부하는 것들 중에서 조세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tributum 이라는 말이 조세를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15) H. Ulrich, Personalaspekte der frühbyzantinischen steuerordnung, 1988, pp. 43-49

16) Cicero, Verr. 2.2,13:3, 14f. 당시의 십일세는 결코 무압적인 조세는 아니었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경우에는 1/3세를 징수했다. (A. Lintott, Imperium Romanum, p.95)

17) Appianus, Bell. Civ 5,4.

18) R. Duncan-Jones, Money and Government in the Roman Empire, Cambridge Univ. Press, 1994, pp. 47-55

19) R. MacMullen, "Tax-Pressure in the Roman Empire", Latomus 46,1987, p. 738

20) stipendium은 본래 군대의 급료를 의미했다. 스키피오 아에밀리아누스가 스페인에 주둔할 때, 군대의 급료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스페인들로부터 돈을 징수하였다. 이 때 stipendium은 군대에 대한 급료가 아니라 속주에 대한 조세가 되었다(Livius, 28, 25, 9f)

21) Appianus, Bell. Civ., 5. 4 ; Dio Cassius, Historia romana, 42. 6.

조합이 계속 활동하고 있었다.²²⁾ 이들은 몇몇 속주들의 직접세, 간접세, 로마 시민들의 상속세, 황제령의 수입 등을 도급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속주민들이 납부했던 세금은 대체적으로 정규세와 비정규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규세는 다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간접세는 관세로 대표되는데, 직접세에 비하면 비중이 훨씬 적었기 때문에 주로 직접세를 다루겠다.

속주민들이 납부하는 세를 속주세(tributum)²³⁾라고 하는데, 이는 토지세(tributum soli)와 인두세(tributum capitis)로 대별된다.²⁴⁾ 토지세의 경우 그 수확성과 조세부담능력이 고려되고 있었고, 주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토지가 있는 지역에 부과되었다. 히스파니아 속주에서 이미 로마 시기에 고정된 세율의 조세가 부과되었다. 토지세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시실리의 경우이다. 키케로에 따르면 시실리 속주에는 곡물, 올리브, 기타 과일과 같은 생산물에 십일세(decuma)가 부과되었다.²⁵⁾ 그리고 가이우스 그라쿠스는 기원전 123-2년에 아시아 소주에 대해서도 십일세(decuma)를 부과하였다.²⁶⁾ 십일세(decuma)가 표준적인 조세율이었지만, 이집트에서 발견된 사료들에 의하면 토지가 공유지나 사유지나, 또한 소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세율은 다양했고, 포도와 올리브의 경우 세율은 좀더 높았다.²⁷⁾ 따라서 고정된 정율세가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고, 기준이 되는 정율세가 있고 그 비율에 의해서 조세총액을 산정하여, 각 지역별 총액제로 조세징수가 이루어 졌을 것이다. 인두세도 지역별로 다르지만 12세에서 65세까지의 사람들에게 부과되어, 그 담세능력이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차치시들은 왕이나 군대가 지나갈 때 숙박을 제공하고, 접대하고, 역축을 제공해야 했다. 이것을 '접대'(hospitalitas)라고 하는데, 로마의 '접대'에 따르면 주인은 주거와 난방을 제공해야 하지만, 토지, 생산물, 다른 농촌의 물품을 제공할 의무는 없었다.²⁹⁾

3. 삭개오의 경영 과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마 17:24~25)

상기 마태복음의 성구와 같이 성전세와 로마의 세금제도(마 17:24)에 있어서 성전세는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와 제사장과 그들이 생활과 기타 성전 운영을 위한 경비 조달을 위해 20세 이상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일종의 종교세였다. 이는 성막 제사를 위해 모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출 30:13), 예수님 당시 성전세는 한 명 당 반세겔로 오늘날의 미국 화폐 30센트 정도에 해당된다.

한편 로마의 조세 종류에는 여러 통과 지점에서 부과하는 통과세인 관세와 판매세, 노예 해방세, 로마 시민의 상속세 등이 있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1/10 을 포함한 각 속주에 있

22) P. A. Brunt, "Publicans in the Principate", Roman Imperial themes, 1990, p.356.

23) W. Goffart, caput and Colonate, ibid

24) H. Ulrich, Personalaspekte der frijhbyzantischen Steuerordnung, 1988, pp.43-49.

25) Cicero, Verr. 2, 2, 13 ; 3, 14f. 당시 세계에서 십일세는 결코 억압적인 조세는 아니었다. 셀로우코스 왕조의 경우에는 1/3세를 징수했다. A. Lintott, Imperium Romanum, p.95

26) Appianus. Bell. Civ. 5, 4.

27) R. Duncan-Jones, Money and Government in the Roman Empire, Cambridge Univ. Press, 1994, pp.47-55.

28)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증거는 이집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R. Duncan-Jones, Money and Government in the Roman Empire, pp.47-63 참조.

29) 정기문, 로마제정의 조세제도 정비와 그 한계, 한국서양고전학회, 2000. 6. 권호정보 제14집 (2000. 6), pp.217-240

는 조세징수권을 세리들에게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여기서의 관세는 세리들이 징수하는 관세 또는 공세(公稅)를 말하며, 정세는 직간접적으로 징수하는 인두세를 말한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로마정부가 요구하는 이상의 과다한 세금 부과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다.

제정 초에 로마 제국의 행정 체계는 지방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였다.³⁰⁾ 조세제도 면에서도 역시 지방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었다. 그리고 인구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로 중앙 정부가 직접 조세를 산정하고 개인에게 징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당시 속주민은 지역 관리에게 조세를 납부했으나, 중앙 정부의 파견자나 관리에게 납부하지 않았다.³¹⁾ 이런 정황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리새인들이 카이사르에게 조세를 바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자, 예수님은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³²⁾고 말하였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로마에 조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그 조세를 실제로 징수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신약 성경에 유대인 세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삭개오라는 인물은 세리장으로 묘사되어 있다.³³⁾ 그렇지만 로마인 조세 징수자들과의 직접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인구 및 재산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인 지방 정부가 조세 징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사실 공화정기에 조세징수청부업자들(publicani)이 조세를 징수할 때도, 그들이 실질적으로 상대한 것은 지방 정부였다.³⁴⁾

III. 발상의 전환을 통한 삭개오식(式) 경영 패러다임

1.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었는데 (눅19:2)의 조세상황은 로마정부와 결탁하고 있어서³⁵⁾ 그들 임의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부당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그 일부만 정부에 바치고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했으므로 막대한 치부가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그렇게 편치 못했던 것 같다. 육신의 생활은 호화롭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이름과는 정반대로 정의롭고 순결하게 삼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신이 행하였던 경영과오에서 벗어나야 하겠다는 강한 충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0) 제정초 로마의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Alan K. Bowman,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taxation", Cambridge Ancient History, 1996 참조.

31) 제정 초에 조세징수청부업이 폐지되면서 징수업무를 지방정부가 맡게 되었다. 자치 행정 기구가 없고 복잡한 관료기구가 발달하였던 이집트에서 중앙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관료기구를 폐지하고 자치시를 편성했다는 점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조세징수의 기본 단위인 도시에서 조세징수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조세도급이고 다른 하나는 조세징수의 의무를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특정인에게 징수를 부과하는 경우 자치시들은 조세징수자를 선출하였고, 이들이 실질적인 징수를 담당하였다. 도시들은 납부해야 할 액수만큼 징수하지 못하면, 부족한 액수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충했다(A. H. M. Jones Greek City, pp. 139-140)는 점에서 로마의 조세정책적 한계를 드러냈다.

32) 마가복음 12: 13-17.

33) 누가복음 19: 2.

34) 이렇듯 지방 공동체를 통한 간접 징수를 하는 것은 정복 지역의 정치, 문화, 관습 등을 가능한 한 유지시켜 주는 로마의 괴정복민 정책의 기인한다. 그러나 로마가 직접 지배하려고 했다고 해도 직접 징세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대국가로서 로마는 정밀한 관료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홉킨스(K. Hopkins)의 계산에 따르면 기원후 2세기에 속주에 파견된 관리가 150명 정도였는데, 대략 총인구가 오천만 내지 칠천만이었기 때문에 관리 1인당 사십만 정도의 속주민을 지배했다. (K. Hopkins, "Taxes and Trade in the Roman Empire(200B.B.-A.D.400)", JRS 70, pp115-116). 디오클레티아누스의 행정개혁 이후 문관수가 대폭 증가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존스(A. H. M. Jones)의 계산에 따르면 5세기에 문관의 숫자는 대략 삼만명이었다. (A. H. M. Jones, The Roman Economy, 1974, p. 129)

35) 로마의 조세 종류에는 여러 통과 지점에서 부과하는 통과세인 관세와 판매세, 노예해방세, 로마시민의 상속세 등이 있었다. 그리고 농수산물의 1/10을 포함한 각 속주에 있는 조세 징수권을 세리들에게 파는 것이 보통이었다.<마 17:25>에 나오는 관세는 세리들이 징수하는 관세 또는 공세를 말하며, 공세는 직·간접적으로 징수하는 인두세를 말한다. 예수님 당시 세리들은 로마정부가 요구하는 이상의 과다한 세금부과로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다.

마침 그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 예수라는 존재가 과연 사람일까, 삭개오는 무척 그를 보고 싶었다.(desire) 그러나 그의 키는 너무 왜소하였고 더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inferior of competition) 불가능할 것 같은 강렬한 욕망은 새로운 경영의 돌파구이듯이 “어떻게 할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여러 가지 대체방안(alternatives)을 모색하였다. 드디어 멀찌감치 뽕나무³⁶⁾ 위로 올라가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기로 하고(plan) 이것을 당장 실천에 옮겼다(do) 나무아래 저만치서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needs)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시는 것이었다. 이런 삭개오야말로 컨틴전시 이론(contingency theory)³⁷⁾의 실천적 명수가 아니었을까?

이윽고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이르러서 올려다 보시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눅 19:5)고 하셨다. 난장이 삭개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과거의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받은 삭개오는 과거의 낡은 경영 구습을 버리고 적극적인 사고로 혁신적인 경영을 도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누구에게서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다.(눅19:8)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그의 삶 전체(total management)에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그의 가치관(경영철학)이 바뀌고 인생관(경영이념)이 바뀌어졌으며 눈에 보이는 재물(visible goods)보다 그리스도와 그를 영접하는 보이지 않는 신앙(invisible faith)을 더 귀하게 여겼다.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다.

둘째,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죄인의 취급을 받으며 욕을 먹고사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는 정당한 경영윤리를 어기고, 양심을 속이고 치부에 어두웠던(눅:19:2) 비합리적인 경영관을 가졌던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뉴스는 온 여리고 성읍에 알려져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이야기꺼리가 되었을 것이다. 자기들을 압제하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증오의 대상이 된 세리가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한 토픽감이 되었음에 분명하다.

셋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축복을 받았다. 결단하는 삭개오를 향해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눅19:9-10)라고 축복하셨다. 구원의 문제는 소유(possession)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being)의 문제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부끄러움과 죄와 고독과 허무함에서 벗어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순간 주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귀한 축복의 음성이다. 이제 그는 구원의 반열, 축복의 반열에 선 자가 된 것이다. 이 사건이후로 그는 새로운 삶(경영상의 personality)³⁸⁾의 의미와 가치관(경영상의 reengineering)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기존의 성경적 축복의 패턴과는 다른 형

36)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올라간 뽕나무는 무화과 종류의 나무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무화과이다. 가지가 넓고 아래로 늘어져 사람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37) 컨틴전시 이론(contingency theory)은 여러 연구가들에 의하여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에 따라 이론상의 체계도 다양하다. “우발적” 또는 “우연한 발생”의 의미로 함축성있게 해석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상황적합이론 등 여러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컨틴전시 이론(contingency theory)의 개념을 처음 사용한 Lawrence와 Lorsch는 그 개념을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직은 어떠한 전략과 특징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밝히기 위한 이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8) 소비자 행동(consumer behaviour)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영향을 나타낸 것인데 경영상의 행동적 반응을 결정하는 개성들의 개인적 패턴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personality 를 바탕으로 환경적 자극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반응을 보인다.

식의 축복의 통로였다. 기존의 축복의 패턴은 하나님(주님)이 명령 내지는 지시하고 이를 순종(시행)하면 축복을 받는 형식이었지만(표- 참조) 본문에서 나오는 삭개오의 경우는 전혀 새로운, 어쩌면 인간의 견해로는 실로 즉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삭개오의 역발상적인 경영방식이 일시에 스포트 라이트를 받는 순간이었다.

<표> 기존 축복의 패턴

	Plan (명령) →	Do (순종) →	See (축복)
구약	아브람 -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창11:31)	떠남	복의 근원 (창12:1~2)
	아브람 -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창22:2)	드리기로 작정하고 시도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
	이스라엘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감. 뱀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21:8~9)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신약	시몬 베드로 - 깊은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5:4)	그리한즉	고기를 예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짐
	중풍병자 -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9:6)	일어나 집으로 돌아감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베데스다 못가의 38년된 병자 -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5:8)	순종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감

자료 : 필자가 신·구약 성경에 의거해서 작성.

2. 직무몰입형 경영자

(1) 기회를 포착하는 경영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시기는 마치 “기회는 나는 새와 같다”는 서양 격언을 실현이라도 하듯이 실로 호랑이 꼬리를 밟은 격이었다. 왜냐하면 본문 바로 앞의 소경 바디메오 사건(눅 19:35~43)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고(눅 18:35), 지금의 삭개오 사건은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빠져나가시는 즈음(눅19:1)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삭개오가 이 시기를 놓쳤다면 영원히 그에게는 구원받을 절호의 찬스를 놓쳤을지 모른다.

성공하는 경영자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마치 동물이 먹이를 낚아채듯 지극히 순간적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현대 마케팅에서는 기업도 기회를 포착하는 훌륭한 이야기꾼이 되어 상품을 잘 팔 수 있다는 소위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뜨고 있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의사소통의 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2002년 휴렛 팩커드(HP) 회사가 복잡한 그래픽과 숫자로 수 백번 회의를 해봤자 직원들 머리 속에 뽕뽕 떠다니게 한다며 이런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봤더니 마법처럼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있다.³⁹⁾

본문은 삭개오에게 밀어닥친 위기경영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위기의 유형은 첫째, 죄로 인하여 닥치는 위기인데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에게 닥친 위기이다. 밧세바와 간음한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겪었던 위기가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시는 위기로 아브라함이 늙어서 얻은 외아들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맞게 되는 위기이다. 셋째, 외부로부터 닥치는 시련에 의한 위기인데 대홍수의 위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위기, 사사기와 열왕기에 나오는 외적들의 침입에 의한 위기, 질병과 기근에 의한 위기,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바울의 배 등이 이러한 위기의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욕심과 죄로 인한 위기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는 온전히 순종하며, 환난으로 인한 위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

삭개오는 자기에게 밀어닥친 경영의 위기에 대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잘 훈련된 경영적 자세로 사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동시에 주(Lord)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2) 자기 일에 몰입한 경영자

삭개오 직무몰입형 경영자(job oriented CEO)였으며,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았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세리장이고 부자(눅19:2)였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소유하긴 했으나 누가복음

39) 스토리의 힘을 깨닫은 최고경영자(CEO) 중에는 이메일이나 블로그 등을 통한 이야기 커뮤니케이션으로 직원들과 일체감을 높이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 천마이크로시스템즈의 CEO 조너선 슈워츠(Schwartz)는 블로그를 한국어 등 11개 언어로 운영 중이다. 여기에는 경영전략은 물론 개인적인 이야기도 털어놓는다. 자신이 한때 박물관 경비원이었고 인도-웨일스-헝가리-러시아의 혼혈이라는 것 등을 일기 형식으로 올렸다. 슈워츠는 “내 이야기를 털어놓자 직원들과의 대화가 붓물 터지듯 터졌다”며 “결과적으로 내 의사결정(decision making)에 대해 직원들이 더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스토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끌기 위해 기업이 광고나 마케팅에 자주 활용하는 소재다. 생활용품업체 도브(Dove)는 2004년부터 ‘진실한 아름다움(real beauty)’이라는 이야기 마케팅 캠페인을 가동하고 있다. 전 세계의 평범한 여성들이 출연해 자신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리즈다. 도브는 코가 튀어나온 여성, 주름이 가득한 70대 할머니 등 다양한 외모의 여성들을 등장시켜 자신의 몸에 대한 사연을 말하게 한다. 이 캠페인으로 도브는 전 세계 여성들 사이에서 ‘자연 미인’ 열풍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엄청난 홍보 효과를 얻었다.

- 최근 에피소드엔 빨간 머리에 주근깨투성이 여성이 등장한다. “어느 날 버스 탔는데, 한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이러는 거예요. ‘얼굴에 레몬을 발라봐요. 주근깨가 좀 얼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대답해죠. ‘괜찮아요 저는 제 주근깨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걸요~’라고.”

- 미래학자 롤프 옌센(Rolf Jensen)은 “이제 기업은 상품이 아닌 이야기를 판다”고 말했다. 나이키가 운동화보다 마이클 조던의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할리 데이비슨이 오토바이보다는 ‘자유’를, 애플이 컴퓨터보다는 ‘세련됨’을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 같은 이유로 명품 브랜드 페라가모는 영화 ‘7년 만의 외출’에서 마릴린 먼로가 지하철 통풍구에서 스키트 자락을 날리는 명장면을 찍기 위해 페라가모 신발을 고집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한다.

- 지포(Zippo) 라이터는 베트남전쟁에서 총알을 막아준 이야기를 끊임없이 광고에 우려 먹고 있다.

- 스타벅스(starbucks)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콩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재배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지금 커피로 만들어지는지를 매장에 귀여운 캐리커처를 이용해 설명해 놓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커피문화’로 끌어들이는 등.

기업의 스토리 마케팅 유형	
유형	기업 및 제품
기념일	빼빼로 데이 (11월 11일)를 탄생시킨 롯데 제과
유명인	마릴린 먼로와 페라가모 구두, 마이클 조던과 나이키 운동화
창업자	마스카라를 개발한 메이블린 창업자
소비자 경험담	평범한 소비자를 등장시킨 도브, 애플
패러디 광고	동화를 이용한 배스킨 라빈스

19: 7의⁴⁰⁾ 내용으로 볼 때 존경받는 인물은 되지 못했고 오히려 같은 동족들에게는 멸시와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자기 일에 몰입한 경영자였다고 볼 수 있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본, 자산, 경영방침, 경영자의 사고방식 등 제시할수 있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영에서 한 사람에게 꽃(권력)과 열매(금전적 대가)를 함께 쥐어주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견제하기 위함이다. 경영자가 측근을 관리할 때,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기업이 도탄에 빠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한 쪽에는 꽃을, 다른 한 쪽에는 열매를 쥐어주는 것으로 각각의 이점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선택, 경영자 자신이 그 두가지를 용해시키는 입장에 서있다면 굳이 스스로 그들을 견제하지 않아도 상호 견제성에 의해 당연히 주권이 경영자의 손에 쥐어지게 된다. 이것을 도쿠가와 이에야스⁴¹⁾의 인간경영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라고 경영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인간경영의 또 다른 방법론은 ‘원교근공(遠交近攻)’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는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측근)과는 적절한 선을 유지하여 형평성과 보편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영자 자신의 객관성을 부각시키는 경영방법이다.

삭개오는 자기가 맡은일에 부지런히 일하는 몰입형 경영자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적절한 교환관계를 유지한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다.⁴²⁾

3. 삭개오식 경영의 탁월성

발상의 전환을 통한 삭개오식 경영의 내용을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병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내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었을 때는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것이다. 아마도 그날 삭개오는 때마침 거리를 걷고 있었거나, 아니면 근처 사무실에서 자기 사무를 보고 있었을 것이며, 한 낮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의문이 생겼을 것이다. 그가 이전에 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났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삭개오가 예수가 누구인지 보고자 했다’고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는 키가 작아서 군중들 너머로 예수를 바라다 볼 수 없었다. 그래서 무리들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예수가 자기가 서 있는 거리를 지나가리라 예측하고, 앞으로 달려나가(실행) 요단 골짜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뽕나무(무화과나무의 일종) 위로 기어 올라갔다(발상전환적 실행). 삭개오는 예수께서 뽕나무 밑에 오셔서 멈추시고 자기를 올려다 보시면서 군중들의 소음 너머로 내려오라고 부르실 때 분명히 섬뜩하게 놀랐을 것이며, 한편으로는 ‘여리고의 세리장이 나무 위에 올라 갔다’고 소리치며 놀라는 군중들이 모두 자기를 쳐다볼 때 약간 난처했을 것이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 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留)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만이 가지신 신적 지식(神的知識)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다. 전지(全知)하신 CEO 주님께서서는 나다니엘(Nathanael)을 단번에 아심같이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던 것이다(요1:48).

한편 삭개오가 회개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여리고에서 굉장한 소란을 일으켰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억압하는 로마인들의 협력자로서, 증오의 대상이었던 세리가

40) 눅 19:7의 사실은 예수께서 삭개오의 영접을 받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못사람이 보고 수근거리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다.

41)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시대 상황에 따라 몇 번이나 퇴사나가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그는 여론을 중시하고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종류의 전략을 구상했는데 가장 큰 전략이 항상 안정된 조직 위에 군림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다. ①모든면에 분단법(分斷法)을 활용 ②한 사람에게 꽃과 열매를 함께 주지 않음 ③늘 민심의 동향을 파악 ④상인의 검소한 생활, 계산 능력, 재능 등 세가지 원칙을 경영의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42) 마케팅의 관계적 교환이론(relational exchange theory)에서는 교환관계에 있는 상대방과의 상호간 신뢰와 몰입이 교환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특히 Cook & Emerson(1978)은 교환 네트워크에서의 몰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전도활동을 통해 회개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삭개오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기억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죄인 중의 죄인과 사랑의 주(主)와의 아주 서로 상반되는 사람끼리의 위대한 만남에 있어서 결국 사랑이 승리했기 때문이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 : 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복음의 메시지이며 추진력이다. 조그마한 체구의 이 유대인이 회개하게 된 사실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갱생(更生)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 믿음으로 크게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했고, 자신의 믿음과 회개의 명백한 증거를 즉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의 죄악된 생활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고백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라는 삭개오의 말은 그의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이제 삭개오는 이전에 행했던 생활과는 전혀 상반되는 생활을 했으니, (경영의 혁신적 개혁)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식 경영의 탁월성을 엿볼수 있다. 예측과 실행 그리고 발상전환적 경영을 전략적으로 실현시킨 이 사실이야말로 글로벌 경영(global management)이며, 동시에 전략적 경영(strategic management)⁴³⁾으로 볼 수 있다. 삭개오식 경영이야말로 유대인의 풍습으로는 남자의 연수입 중 1/5은 구제기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는데, 삭개오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회사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 이외에도 삭개오는 자신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으로 모으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의 부하들이 공갈과 협박과 거짓권고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사람들에게서 탈취해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뉘 것을 토색(討索)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말했다. 경영학자들은 삭개오가 ‘내가 죽을 때’라 말하지 않고 ‘지금 내 소유로 보상하겠나이다’(didomi)라고 말했던 사실을 주목해왔다. 삭개오는 도둑질한 자가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두 배로 보상을 했었다(출 22: 1 ; 민 5:6).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눅 19:9)라고 예수께서 삭개오의 죄를 용서해주신 이 말씀은 삭개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은 옛 언약하의 유대인의 가족개념에서 그 뜻이 나타난다. 이제 삭개오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약속의 자손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삭개오에게 충만히 성취된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약속은 그가 행한 직무(職務)로 인해 이방인으로 생각되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약속이었다(마 18:17).

IV. 결 론

삭개오는 그 이름에서 기인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순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로마 정부의 세금 감독관으로써 로마정부나 그 속국의 지방정부로부터 여리고 지역의 세금 징수권을 사들여, 수하에 많은 세리들을 고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의 동족으로 침략자의 정부를 위해서 치부한 삭개오를 여리고 사람들이 좋게 보았을 리 만무하다. 그것도 교통의 요지이며 상업의 중심지인 여리고에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예사로운 일이 아니며 중세에 이런 사실은 경영학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말처럼 잘나가는 삭개오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43) 기업이 설정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는데, 전략결정의 4가지 고려요소는 외부환경(기회), 내부여건(능력), 경영철학, 사회적 책임을 지칭한다. 새로운 전략경영 체제는 ①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②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며 ③ 전략적 협력을 실행하는데 있다.

의 그에게는 분명 경영위기임에 틀림없었다. 동시에 이 경영자는 이러한 곤경에 처해지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을까?” “과연 진정한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체 세력인가?” 등의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그는 이러한 경영위기를 종결시킬 결단의 주인공의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고 그를 마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라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을 궁리한 끝에 다중(多衆)들이 이용하는 예수의 뒤를 따르는 구태의연한 평면적 기법을 지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리라고 예상한 지점의 나무 위로 올라가는 소위 역발상적 경영기법을 적용하였다. 그 방법은 이 사안에 주효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독으로 만남으로 자신의 인생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장면이 우리로 하여금 삭개오가 경영의 귀재임을 실감케하는 사실이다.

분명 삭개오라는 사람은 유대가 로마의 속주(provincia)로 된 환경의 희생물임에 틀림없었으나, 그런 사실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주(Lord)를 만나 다시금 구원받는 새 사람이 되는 일련의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특별히 그가 받은 축복은 일반적인 성경의 축복 패턴을 뛰어넘는 예사롭지 않은 방법이며 그의 특별한 경영 마인드로 역경을 순경으로 바꾼 경영의 귀재임에 틀림없으며 천재일우의 행운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 기독교 경영 연구원, 기독교경영연구, 2002. 12
 기독교 학문학회, 신앙과 학문, 진흥인대, 2002년 가을-겨울호, 2001년 여름호
 김종춘, 크리스천 CEO 스토리, 민흥, 2002. 4
 김진홍, 행동하시는 하나님, 두레시대, 1993. 1
 로리 베스 존스 저, 송경근, 김홍섭 역, 최고 경영자 예수(Jesus CEO), 한-언, 2002. 2
 마이론 러쉬 저, 임창일 역, 성서적 경영방법, 생명의 말씀사, 1986. 10
 박종철, 하이델 베르그 刊, 해운삼일교회 교리문답, 2002.
 박창식, 현대사회와 경영, 현대출판사, 2002
 성서교재간행사, 성서백과대사전, 1980.
 잭 하트만저, 오태용 역, 성경은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베다니 출판사, 2002. 9
 A. E. マクグラス 저, 도한구화, 회택정칙, 소림고덕 역, 科學と宗教, 敎文館, 2003. 3
 이환봉, 칼빈의 교육적 유산, 제네바 아카데미, (기독교 대학의 교육원리와 실제), 2001.
 정기문, 로마제정의 조세제도 정비와 그 한계, 한국서양고전학회 제14집, 2000. 6.
 한국 로고스 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자료, 2002. 10
 한정화, 성경에서 배우는 위기경영의 지혜, Christian Management, 2003
 A. H. M. Jones, Jones Greek City, pp.
 A. H. M. Jones, The Roman Economy, 1974.
 Alan K. Bowman, "provincial Administration and taxation", Cambridge Ancient History, 1996.
 Andrew Lintott, Imperium Romanum,
 Cook & Enerson, Appianus, Vell Civ, 5,4 ; Dio Cassius, Historia Romana, 42.6, 1978
 F.D. Martino, Nuovi studi di economia e diritto romano, 1988.
 Henry C. Boren, The Gracchi, North Carolina University Press, 1968.
 H. Ulrich, Personalaspekte der fruhbyzantinischen steuerordnung, 1988.
 K. Hopkins, "Taxes and Trade in the Roman Empire(200B.B.-A.D.400)", JRS 70.
 Marta sordi, The Christians and the Roman Empire, 1988,
 R. MacMullen, "Tax-Pressure in the Roman Empire", Latomus 46, 1987,
 P.A. Brunt, "Publicans in the Principate, "Roman Imperial Themes, 1990,
 R. Duncan- Jones, Money and Government in the Roman Empire, Cambridge Univ. Press,

1994.

R. MacMullen, "Tax-Pressure in the Roman Empire", *Latomus* 46, 1987.

W. Goffart, *Caput and Colorat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74.